



##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최 용 환 선임연구위원  
김 영 한 선임연구위원  
권 오 영 부연구위원

### 요약<sup>1)</sup>

-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
- 이에 본 연구는 인구소멸 위기 속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세부 정책방향과 정책의 청사진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전문가조사 결과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분석결과, 첫째,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해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함.
- 둘째,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로 지역혁신, 대학혁신, 협업은 모두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셋째, 부처의 산업개편 추진방향을 분석하여 보면, 부산, 울산, 경남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온 곳이 대개 중점지역으로 분류. 이에 지역의 새로운 기술도입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경쟁력의 전환과 유지도 당분간 지역 청년고용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연구과제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을 발췌·요약한 것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 이에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
- ▶ 2023년 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을 통해 낮은 출산율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이러한 현 정부의 노력을 담은 다양한 정책들의 핵심에는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이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이에 본 연구는 인구소멸 위기 속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세부 정책방향과 정책의 청사진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2. 정책시사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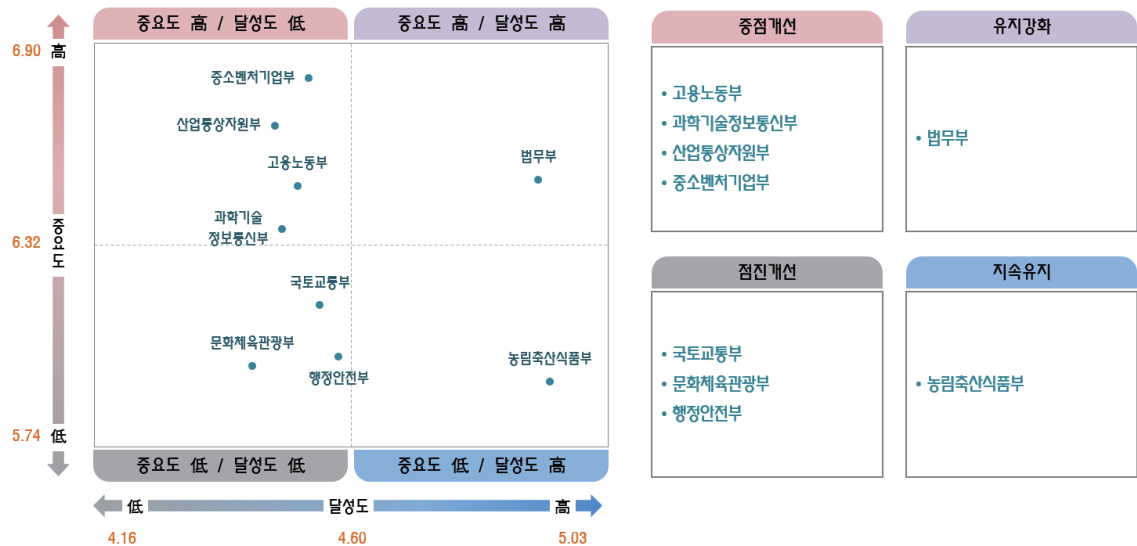
- ▶ 조사 개요
  - 청년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별 특성, 국정과제, 주요 부처의 전략,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 등을 분석함.
    -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조사의 경우 청년전문가 및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위탁업체를 통해 온라인 조사 실시.
    - 구체적으로 표집의 경우 조사 전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500여 명을 대상을 하여, 모집된 500여 명을 대상에 대한 무작위 추출로 총 150명의 유효표본을 목표로 추진.
  - 그 결과 청년전문가 65명, 정책전문가가 90명으로 총 155명이 응답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약 2주간 실시.

## 3.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 ▶ IPA 분석결과
  -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을 보면, 중요도와 달성도의 IPA 분석 결과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32과 4.60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로 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 유지강화해야 할 부처로는 법무부가 해당됨.
    -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됨.
    -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해당됨.
    - 반면,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됨.

**[표 1]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중요도 및 목표 달성도**

| 집단<br>내용  | 역할 중요도 |       |       | 목표달성도 |       |       |
|-----------|--------|-------|-------|-------|-------|-------|
|           | 전체     | 청년전문가 | 정책전문가 | 전체    | 청년전문가 | 정책전문가 |
| 사례 수      | (155)  | (65)  | (90)  | (155) | (65)  | (90)  |
| 고용노동부     | 6.49   | 6.62  | 6.40  | 4.50  | 4.38  | 4.5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37   | 6.46  | 6.30  | 4.48  | 4.38  | 4.54  |
| 국토교통부     | 6.15   | 6.14  | 6.16  | 4.54  | 4.32  | 4.70  |
| 농림축산식품부   | 5.93   | 6.18  | 5.74  | 4.94  | 4.77  | 5.06  |
| 법무부       | 6.51   | 6.29  | 6.67  | 4.92  | 4.65  | 5.11  |
| 문화체육관광부   | 5.97   | 5.74  | 6.14  | 4.43  | 4.28  | 4.53  |
| 산업통상자원부   | 6.66   | 6.46  | 6.81  | 4.46  | 4.32  | 4.57  |
| 중소벤처기업부   | 6.80   | 7.05  | 6.62  | 4.52  | 4.20  | 4.76  |
| 행정안전부     | 6.00   | 6.09  | 5.93  | 4.57  | 4.28  | 4.79  |

**[그림 1]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중요도 및 목표 달성도**

#### 4. 산업통상자원부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에 대한 IPA분석

▶ IPA 분석결과,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65와 3.86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는 강원, 충남, 대구, 광주가 포함됨.
-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으로는 경북, 경남, 울산, 부산이 포함됨. 반면,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충북, 전북, 전남, 제주가 해당되었으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세종과 대전.

- 대구의 모빌리티 부품 / SW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울산의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산의 해양ICT융합 순으로 나타남.
- 목표 달성도의 경우 주의 에너지 및 미래차의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의 수소에너지, 세종의 자율주행플랫폼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부산의 해양ICT융합의 달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산업통상자원부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에 대한 중요도 및 목표 달성도

| 집단                | 내용 | 역할 중요도 |       |       | 목표달성도 |       |       |
|-------------------|----|--------|-------|-------|-------|-------|-------|
|                   |    | 전체     | 청년전문가 | 정책전문가 | 전체    | 청년전문가 | 정책전문가 |
| 사례 수              |    | (155)  | (65)  | (90)  | (155) | (65)  | (90)  |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    | 6.91   | 6.98  | 6.86  | 4.13  | 4.03  | 4.20  |
| (충북) 지능형첨단부품      |    | 6.32   | 6.42  | 6.26  | 3.67  | 3.60  | 3.72  |
| (충남) 수소에너지        |    | 6.70   | 6.80  | 6.63  | 4.38  | 4.40  | 4.37  |
| (세종) 자율주행플랫폼      |    | 6.30   | 6.35  | 6.26  | 4.33  | 4.12  | 4.48  |
| (대전) 스마트안전사업      |    | 6.20   | 6.31  | 6.12  | 4.12  | 4.20  | 4.06  |
| (대구) 모빌리티 부품 / SW |    | 7.03   | 6.92  | 7.10  | 4.25  | 4.43  | 4.12  |
| (경북) 미래 모빌리티부품    |    | 6.78   | 6.69  | 6.84  | 3.68  | 3.63  | 3.72  |
| (경남) 항공부품소재       |    | 6.77   | 6.63  | 6.88  | 3.55  | 3.40  | 3.67  |
| (울산) 전력구동 모빌리티    |    | 6.97   | 6.92  | 7.00  | 3.66  | 3.63  | 3.68  |
| (부산) 해양ICT융합      |    | 6.96   | 6.78  | 7.09  | 3.08  | 2.85  | 3.24  |
|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    | 6.75   | 6.48  | 6.96  | 4.76  | 4.89  | 4.67  |
| (전북) 스마트농생명       |    | 6.51   | 6.62  | 6.43  | 3.31  | 3.43  | 3.22  |
| (전남) 에너지신산업       |    | 6.52   | 6.55  | 6.50  | 3.59  | 3.74  | 3.48  |
| (제주) 화장품 및 식품     |    | 6.37   | 6.45  | 6.31  | 3.54  | 3.69  | 3.42  |



[그림 2] 산업통상자원부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에 대한 중요도 및 목표 달성도

## 5.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IPA

▶ IPA 분석결과,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99과 4.87로 나타남.

- 중요도 조사 결과 울산의 전기자동차부품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제주의 지능형관광서비스, 경북의 첨단디지털부품 순으로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강원도의 천연물바이오소재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목표 달성도 조사 결과 경북의 첨단디지털부품의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의 나노반도체, 충북의 첨단반도체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제주의 지능형관광서비스의 달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으로는 대구, 경남, 울산, 제주가 포함됨. 반면,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충남, 세종, 부산, 전북, 전남이 해당되었으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강원, 대전, 광주임.

[표 3]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역할 중요도 및 목표 달성도

| 집단<br>내용         | 역할 중요도 |       |       | 목표달성도 |       |       |
|------------------|--------|-------|-------|-------|-------|-------|
|                  | 전체     | 청년전문가 | 정책전문가 | 전체    | 청년전문가 | 정책전문가 |
| 사례 수             | (155)  | (65)  | (90)  | (155) | (65)  | (90)  |
|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 6.42   | 6.57  | 6.31  | 4.98  | 4.97  | 4.99  |
| (충북) 첨단반도체       | 7.25   | 7.15  | 7.32  | 5.12  | 5.03  | 5.18  |
| (충남) 디스플레이부품장비   | 6.50   | 6.57  | 6.44  | 4.82  | 4.78  | 4.84  |
|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부품  | 6.84   | 6.98  | 6.73  | 4.82  | 4.97  | 4.71  |
| (대전) 나노반도체       | 6.79   | 6.86  | 6.73  | 5.30  | 5.42  | 5.21  |
| (대구) 전기자동차모빌리티부품 | 7.19   | 7.26  | 7.14  | 4.85  | 4.68  | 4.98  |
| (경북) 첨단디지털부품     | 7.27   | 7.49  | 7.11  | 5.46  | 5.63  | 5.33  |
| (경남) 첨단경밀기계      | 7.16   | 7.09  | 7.21  | 4.64  | 4.68  | 4.61  |
| (울산) 전기자동차부품     | 7.61   | 7.48  | 7.70  | 4.68  | 4.57  | 4.76  |
| (부산) 초정밀소재부품     | 6.88   | 6.80  | 6.93  | 4.71  | 4.89  | 4.58  |
| (광주) 스마트홈 부품     | 6.85   | 6.86  | 6.84  | 5.06  | 5.22  | 4.94  |
| (전북) 농생명바이오      | 6.81   | 6.91  | 6.74  | 4.63  | 4.77  | 4.52  |
| (전남) 환경에너지소재부품   | 6.76   | 6.69  | 6.81  | 4.67  | 4.69  | 4.66  |
| (제주) 지능형관광서비스    | 7.50   | 7.60  | 7.43  | 4.46  | 4.49  | 4.43  |



[그림 3]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역할 중요도 및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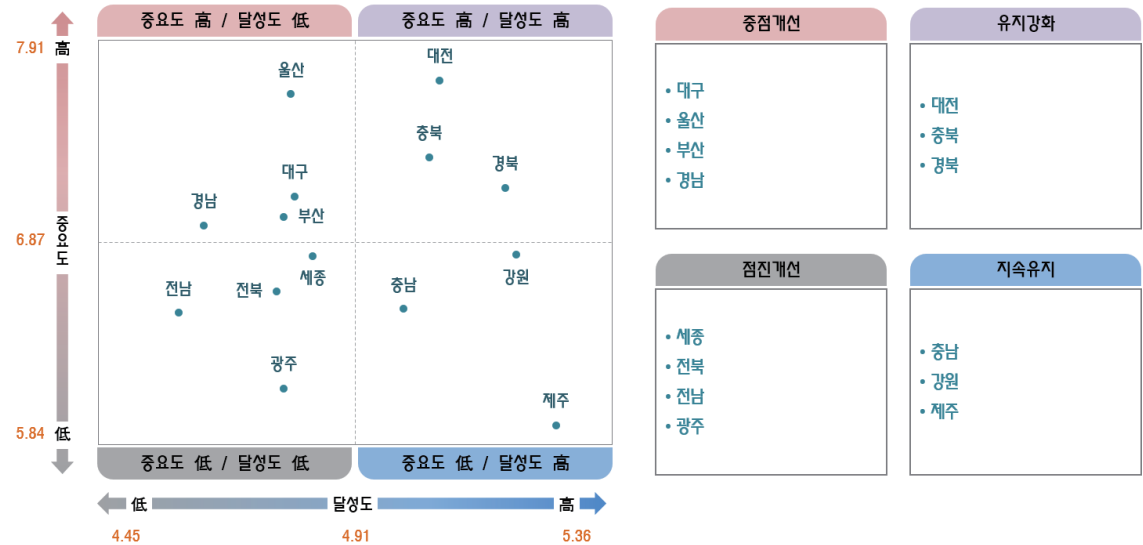
## 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 (미래산업)의 IPA

▶ IPA 분석결과,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87과 4.91로 나타남.

- 중요도 조사 결과 대전의 5G-6G 위성통신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울산의 전기수소차 중요도, 충북의 차세대 이차전지소재 순으로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제주의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목표 달성도 조사 결과 제주의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의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경북의 이차전지모듈시스템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제주의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의 달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으로는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이 포함됨. 반면,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세종, 전북, 전남, 광주가 해당되었으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충남, 강원, 제주가 포함.

[표 4]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산업)의 역할 중요도 및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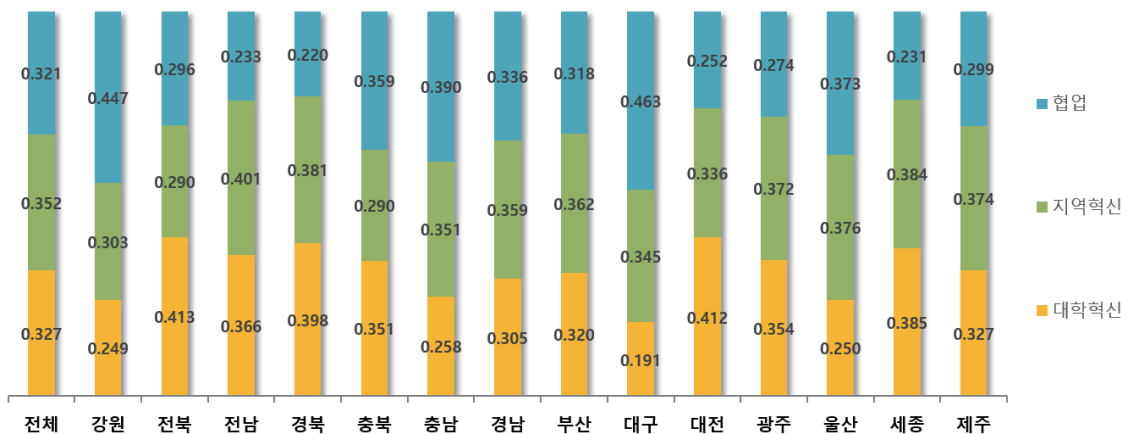
| 집단<br>내용           | 역할 중요도 |       |       | 목표달성도 |       |       |
|--------------------|--------|-------|-------|-------|-------|-------|
|                    | 전체     | 청년전문가 | 정책전문가 | 전체    | 청년전문가 | 정책전문가 |
| 사례 수               | (155)  | (65)  | (90)  | (155) | (65)  | (90)  |
| (강원)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6.81   | 6.86  | 6.78  | 5.19  | 4.97  | 5.36  |
|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셀   | 7.31   | 7.23  | 7.37  | 5.04  | 5.03  | 5.04  |
|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 6.54   | 6.62  | 6.48  | 4.99  | 4.86  | 5.09  |
| (세종) 데이터시보안        | 6.81   | 6.89  | 6.74  | 4.83  | 4.72  | 4.91  |
| (대전) 5G-6G 위성통신    | 7.70   | 7.78  | 7.64  | 5.06  | 5.06  | 5.06  |
|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 7.11   | 7.09  | 7.12  | 4.80  | 4.82  | 4.79  |
| (경북) 이차전지모듈시스템     | 7.15   | 6.89  | 7.34  | 5.17  | 4.97  | 5.32  |
|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      | 6.96   | 6.98  | 6.94  | 4.64  | 4.48  | 4.76  |
| (울산) 전기수소차         | 7.63   | 7.52  | 7.71  | 4.79  | 4.49  | 5.01  |
| (부산) 전력반도체         | 7.01   | 6.98  | 7.02  | 4.78  | 4.60  | 4.91  |
| (광주) 산업활용 · 혁신 AI  | 6.13   | 6.43  | 5.91  | 4.78  | 4.60  | 4.91  |
| (전북) 수전해수소생산       | 6.63   | 7.00  | 6.36  | 4.77  | 4.46  | 4.99  |
|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 6.52   | 6.22  | 6.73  | 4.59  | 4.35  | 4.77  |
| (제주) 이차전지재사용 · 재활용 | 5.94   | 6.11  | 5.82  | 5.26  | 5.11  | 5.38  |



[그림 4]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산업)의 역할 중요도 및 목표 달성도

## 7. 정책제언

- ▶ 첫째,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해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함.
  - 이는 중앙부처의 역할에 관한 IPA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것으로, 모두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되는 부처임.
  - 그 외 다른 중앙부처의 역할도 중요하나(유지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의 목표달성도가 낮은 이들 부처에 대한 중점 개선 노력이 필요함.
- ▶ 둘째, 전문가들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한 전체 결과, 그 가중치는 '지역혁신', '대학혁신', '협업' 순이었으나, 사업 목표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곧 지역혁신, 대학혁신, 협업 모두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로서 비슷한 비중으로 유의미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사업목표는 '지역혁신'으로 0.352였으며, '대학혁신'은 0.327, '협업'은 0.321로 나타남.
  -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로 지역혁신, 대학혁신, 협업은 모두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음.
- ▶ 셋째, 부처의 산업개편 추진방향을 분석하여 보면, 부산, 울산, 경남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온 곳이 대개 중점지역으로 분류. 이에 지역의 새로운 기술도입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경쟁력의 전환과 유지도 당분간 지역 청년고용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그림 5]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 AHP분석결과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23).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